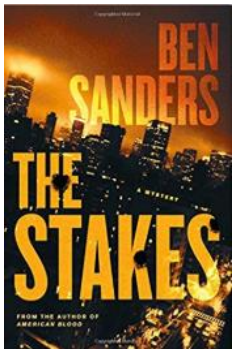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STAKES
가제 : 도둑을 터는 도둑
저자 : Ben Sanders
출판사: Minotaur Books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범죄액션소설

* "흥미진진한 소설. 도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질린다 싶을 때 명료한 대화, 예상치 못한 반전이 보상해줄 것이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재능 있는 뉴질랜드 작가가 쓴 깜짝 놀랄 만한 성과이자 획기적인 책" - 전작 『American Blood』에 대한 「북리스트」 서평

현재 진행 중인 범죄를 가장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그 일에 가담한 자들, 또는 낌새를 맡고 수사 중인 형사들일 것이다. 뉴욕 경찰청 절도 수사팀에 근무 중인 경찰 마일스 켈러는 바로 이 점을 지긋지긋한 경찰 생활을 빨리 접기 위한 지름길로 활용한다. 거물급 도둑들이 벌이는 구린 냄새 지독한 거래가 레이더망에 포착되면 그 사이를 파고들어 그들 사이에 오가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마일스의 전략이다. 필요한 돈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 이 위험한 이중생활이 조금이라도 경찰 내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도둑을 터는 도둑 행각을 이어가던 마일스는 살인 청부업자를 총으로 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되도록 조용히 돈이나 챙겨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훌쩍 떠날 날만 기다리던 그가 어쩌다 대놓고 살인을 저질렀을까? 마일스가 벌인 사건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힌 관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사태는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마일스가 범죄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한치의 틈도 없을 만큼 치밀하고 정교하다. 거래 중간에 거액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사라지더라도 억울하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가져간 자에게 보복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단 포착되면, 어떤 타이밍에 도둑으로 돌변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다. 러시아 마피아에게 살인을 청부한 재벌 변호사 부부가 대리인을 통해 착수금을 전달하는 현장을 덮친 것도 그 교묘한 계획으로 얻은 성과였다. 마일스는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사전에 관련자들을 탐문하고 수사하면서 얻은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 모두가 잠든 한밤 중에 변호

사의 집에서 수억 원의 돈이 오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가 할 일은? 살인 청부업자가 돈을 받으러 오기로 한 시각보다 조금 일찍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복면을 쓴 채로 자신이 모든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 후 정해진 시간에 청부업자가 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돈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마일스의 요구대로 돈을 나눠주지 않았을 때 벌어질 사태는 뒤가 구린 그들 중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다. 떳떳하지 않은 이유로 더러운 손에서 더러운 손으로 전해지는 돈을 좀 가져가는 것이 마일스의 목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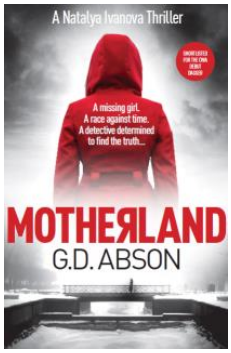
조심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마일스가 총으로 쏴 죽인 잭 딘은 누군가의 청부를 받고 과거 경찰 정보원으로 일했던 루시 게이츠를 노리고 있었다. 한 때 루시의 연인이었던 마일스는 돈 받고 남의 목숨을 함부로 없애는 잭 같은 자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했지만 이유야 어쨌든 그가 저지른 건 살인이었다. 그대로 잡혀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마일스는 잠수를 탈 준비를 시작하는데, 뜻밖의 인연이 나타나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로스앤젤리스 범죄 조직의 보스, 찰스 스톤의 아내 니나 스톤이었다.

매력적인 외모에 두뇌 회전도 빠른 니나는 거의 5년 만에 마일스와 다시 만났다. 그 사이 찰스와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그녀는 뉴욕으로 건너와 영민한 머리를 활용하여 절도범으로 살고 있었다. 마일스가 궁지에 처한 사실을 파악한 니나는 그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일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다. 위험하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번듯한 경찰에서 살인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르는 신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니나가 약속한 거액의 돈도 챙길 수 있다. 결국 마일스는 니나와 손을 잡기로 하지만,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 굴러가지 않는다.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찰리가 니나를 감시하도록 부하를 한 명 보냈는데, 하필 그는 마일스가 쏴 죽인 잭 딘의 사촌, 바비 딘이었다. 니나는 둘의 껄끄러운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이 계획한 거대 범죄에 마일스와 바비 두 사람을 모두 동원시키려 하고, 바비는 보스의 지시대로 니나가 시도하려는 일을 뭐든 망쳐놓을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촌 잭을 죽인 경찰이 눈앞에 나타난 이상 당연히 복수도 해야 한다. 직업도, 처한 현실도 저마다 다르지만 목표를 위해서는 양심이나 주저함 따위 없는 인물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며 벌이는 두뇌 싸움이 강렬한 액션과 함께 펼쳐지고 마일스와 바비 딘의 시선에서 번갈아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속내가 조금씩 공개되면서 긴장감은 점점 고조된다. 경찰은 물론 내노라하는 범죄 조직 양쪽 모두의 표적이 되고 마는 마일스와 니나의 계획은 과연 누구의 성공으로 끝이 날까? 흥미로운 액션 범죄 소설이다.

<저자 소개>

벤 샌더스(Ben Sanders)는 뉴질랜드 출신 작가로 『The Fallen』, 『By Any Means』, 『Only the Dead』 등 여러 편의 베스트셀러와 『American Blood』, 『Marshall's Law』를 썼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2012년에 졸업한 뒤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제목 : MOTHERLAND
가제 : 탐문과 비밀
저자 : Garry Abson
출판사: Mirror Books
발행일: 2018년 4월 2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소설



* 정식 출간 전부터 범죄소설가 협회(CWA) 데뷔 소설 상(CWA Debut Dagger) 결승 진출
* "화려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면에 놓인 푸틴 러시아의 암울한 심장부를 배경으로 한 것부터 흥미를 유발하는 훌륭한 데뷔작" - 베스트셀러 『STASI CHILD』의 작가 데이빗 영
* "흡입력과 사실감이 넘치고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섬세한 스릴러. 마틴 크루즈 스미스의 팬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 - 『CAPTAIN KOROLEV』 시리즈의 작가 윌리엄 라이언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일들이 돈 몇 푼이면 무마되고 대학 입학, 군 입대 등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들도 개인의 능력보다 뇌물로 결정되는 곳, KGB는 사라졌지만 집요함과 엄청난 영향력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연방 보안국'의 감시가 언제 누구에게 따라붙을지 모르는 곳에서 '정상적인' 경찰이 되려고 애쓰는 한 여 형사의 활약을 그린 시리즈가 나왔다. 정식 출간 전부터 범죄소설가 협회(CWA) 데뷔 소설 상 결선에 오르며 주목 받은 이 소설에서 주인공 나탈라 이바노바는 뒷골목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일상과 정부 기관에서도 불법과 뒷거래가 판을 치는 러시아에서 꿋꿋하게 양심을 지키는 올곧은 형사다. 러시아로 유학 온 스웨덴 억만장자의 딸이 실종되고 결국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터지고 담당 형사로 배정된 나탈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현실과 마주한다.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개인적인 삶까지 혼란에 빠지지만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나탈랴의 고투가 이어진다.

2017년 6월, 제나는 러시아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는다. 스웨덴 국왕과도 알고 지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 아버지 덕분에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제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머나먼 러시아까지 왔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친구인 율리아와 긴긴 러시아의 여름 밤을 즐기러 클럽에 간 어느 날 밤, 보드카를 들이키고 만취한 상태로 제나는 길에 홀로 버려진다. 술에 잔뜩 취한 덩치 큰 군인 여섯 명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겨우 빠져 나왔을 때 율리아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비틀대는 몸을 이끌고 헤매다 불량배들에게 붙들려 큰 일을 당할 뻔 했다. 때마침 다가온 자동차 덕분에 제나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지만, 더 큰 불행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미 신분증 외에 돈을 탈탈 털려 어쩔 수 없이 태워주겠다는 그 운전자의 호의를 받아들인 제나는 조수석에 앉고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남자가 제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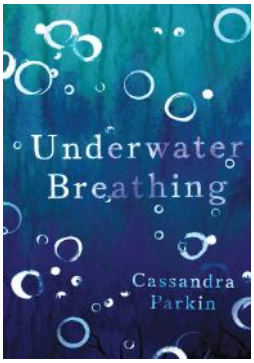
범죄 수사부에서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서른여덟의 형사, 나탈랴는 상관으로부터 난데없이 실종 사건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율리아의 신고로 제나의 실종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고, 윗선에서 제나가 어떤 집안의 자녀인지 전해들은 국장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가장 실력 좋은 나탈랴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당황스러웠지만 명령을 어길 수도 없어서 제나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나탈랴는 돈을 노린 납치 사건이거나 술에 취해 사랑의 도피행각이라도 벌인 단순한 해프닝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주변 인물들을 탐문할수록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드러난다. 제나와 늘 붙어 다니는 친구, 율리아는 돈 많은 집 딸인 제나와 어울리기 위해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것으로 밝혀지고, 제나를 철저히 속이기 위해 SNS 계정 등 여러 곳에 허위 신분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다. 제나의 부친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진다. 마약에 찌든 부모가 버린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 남성이 거둬들여 친딸처럼 키운 것이다.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제나는 결국 시체로 발견되고, 나탈랴는 그녀의 죽음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감지한다. 율리아까지 실종되고, 연방보안국으로부터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압력까지 들어오자, 나탈랴는 더욱 이를 악물고 권력의 힘 뒤에 꽁꽁 숨은 범인을 찾아내리라 마음 먹는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같은 경찰국에서 만난 나탈랴의 남편, 미하일은 범죄수사부의 새로운 부장으로 취임한 전직 연방보안국 요원 출신 도스토이노프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둘의 갈등이 가열되면서 나탈랴의 입지도 위태로워진다. 그 과정에서 나탈랴는 미하일이 자신에게도 숨긴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디까지 그를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열여덟 살이 된 미하일의 아들, 안톤을 대학에 보내야 하는 문제까지 부부의 골칫거리가 된다. 적당한 입학 담당자를 찾아서 뇌물을 먹이지 않으면 안톤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 일을 그르쳐 안톤이 대학에 못 들어가면 강제로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제나의 살인 사건을 덮으려는 마피아와 갱스터까지 등장하고 협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나탈랴의 수사와 가족 모두의 삶이 꼬일 대로 꼬여간다. 1999년 마지막 날, 정부의 감시를 받다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달아난 여배우는 누구의 엄마일까? 엄마의 나라를 찾아온 아이가 겪은 잔인한 현실과 이를 뒤늦게나마 바로 잡으려는 경찰, 그리고 권력과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탐욕이 이야기에 현실감을 더한다. 러시아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흥미를 더하는 범죄 스릴러 시리즈로 2권은 『Black Wolf』는 올해 말 완성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개리 앱슨(Garry Abson)은 잉글랜드에서 프리랜서 사업 분석가로 활동해 왔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UNDERWATER BREATHING
가제 : 숨 참기 게임
저자 : Cassandra Parkin
출판사: Legend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설. 강력히 추천한다." – 소설가 루이스 비치(Louise Beech)
*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게 하는 이야기." – 소설가 니콜라 모리어티 (Nicola Moriarty)

북해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요크셔의 외딴 절벽, 거친 파도가 그대로 와서 내리치는 곳 바로 위에 집 두 채가 서 있다. 그 중 한 곳, 수십 명이 살아도 부족하지 않은 대저택에 네 식구가 이사를 온다. 열여섯 살인 제이콥과 열살 어린 여동생 엘라는, 커다란 방 여섯 개와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실과 먼 옛날 하인들과 집주인들이 따로 썼다는 두 개의 계단이 딸린 집에서 창문에 비처럼 떨어지는 바닷물을 보며 살아간다. 두 남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이 저택에서 가장 큰 욕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싸우는 부모님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바로 그 욕실, 더 정확히는 커다란 욕조였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욱, 제이콥과 엘라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누가 더 오랫동안 물 속에서 숨을 참나 잠수 대결을 벌였다. 하나, 둘, 셋, 넷,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숫자를 세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눈을 꼭 감고 물속에 들어가서 최대한 견디는 것이다. 처음 이사올 때부터 집이 있는 절벽이 점점 깎여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거라는 사실을 남매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미처 도망갈 틈도 없이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바다에 빠졌을 때 살아남으려면 잠수를 잘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게임이지만, 사실 제이콥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야 험한 말이 난무하는 부모님의 음성을 동생이 조금이라도 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부족인건 제이콥도 잘 알고 있었다. 물속에 들어가서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리며 전해졌다. 부모님도 둘이 욕실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호통치기 일쑤였다. 그래도 제이콥과 엘라는 꿋꿋이, 저녁 즈음 엄마아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욕실로 들어갔다. 어쩌면 그 시절 유일하게 좋은 기억일지 모를 남매의 이 서글픈 게임은 어느 날 끝이 나고 만다. 엄마가 엘라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폭풍우가 유난히 며칠씩 거칠게 휘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제이콥은 집에 아빠와 단 둘이 남았음을 뒤늦게 알아챘다. 엄마보다 자신이 누구보다 아끼고 챙기던 여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되었다. 동시에 엄마가 자신은 내팽개치고 엘라만 데려갔다는 것 역시 배신감과 깊은 서운함으로 다가왔다.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 제이콥은 자신도 모르게 절벽 위에 있는 유일한 이웃, 절벽 끄트머리와 더 가까이에 서 있어서 파도에 제이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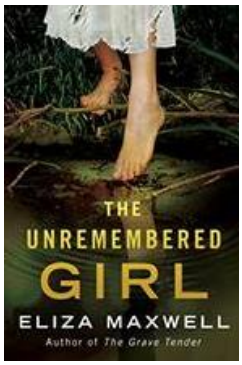
의 집보다 더 빨리 휩쓸려가게 될 그 집에 혼자 사는 아미타지 부인을 찾아간다.

제이콥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녔지만 엘라는 집에서 엄마가 공부를 가르쳤다. 왜 제이콥만 학교에 다니는지, 아무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제이콥은 엘라로부터 아미타지 부인의 집에 가끔 찾아가서 과자를 얻어 먹고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고 들었을 뿐, 그 집에 찾아간 건 처음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범, 갑자기 나타난 제이콥을 맞아준 아미타지 부인은 엄마와 여동생을 잃고 충격에 빠진 소년을 다독여준다. 그 때부터 제이콥에게 아미타지 부인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의논하는 대상이 되었다. 대학에 갈 생각도 하지 않던 소년에게 공부를 하라고,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이끌어준 사람도 아미타지 부인이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이콥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그 절벽 위의 집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바뀐 게 있다면,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치매 증상으로 보이는 갖가지 혼란스러운 징후를 보이며 하루도 혼자 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고함치는데 더 최악은 손에서 술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래 전 떠나버린 엄마에게도 그랬듯 아버지는 잠을 잘 때 외에는 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유일한 보호자로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삶에 갇혀버린 제이콥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질질 끌려가듯 우울한 삶을 이어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0여 년 만에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엘라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훌쩍 큰 성인이 되어 돌아온 엘라의 등장은 강력한 폭풍우처럼 제이콥의 삶을 거세게 휘젓는다. 왜 엄마와 엘라가 단둘이 집을 떠나야만 했을까? 엘라는 제이콥이 알지 못하는, 혹은 자신도 모르게 기억에서 지워버린 비밀을 펼쳐 보이며 제이콥에게 과거의 시간과 정면으로 마주볼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알고 있다 생각했던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제이콥은 엘라를 통해 그제야 깨닫고 다시 충격에 휩싸인다.

남매는 부모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두 사람이 기억하는 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며칠씩 고성이 오가던 집에 가끔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던 일, 그럴 때 엄마는 열두 시간 넘게 죽은 듯이 잠을 잤고, 잠이 깨도 꿈꾸는 사람처럼 멍하게 집안을 돌아다녔다. 제이콥은 엘라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버지가 엄마에게 건네던 주스와 차에 약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 무서운 사실은, 치매 증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에게 얼마 전부터 제이콥도 조금씩 약을 먹여 왔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어디서부터 죄가 될까? 엘라가 읽었다는 엄마의 글, 스토커에게 쫓기는 여자에 관한 섬뜩한 글은 일기일까, 아미타지 부인의 말처럼 그저 소설일까? 가족이 만들어지고 갈라지는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바닷가 절벽이라는 독특한 배경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카산드라 파킨(Cassandra Parkin)는 데뷔소설 『THE SUMMER WE ALL RAN AWAY』(2013)로 '아마존 라이징 스타 상' 결승에 진출했다. 그 밖에 『THE BEACH HUT』 (2015), 『LILY'S HOUSE』 (2016), 『THE WINTER'S CHILD』 (2017) 를 발표했다. 단편 모음집 『New World Fairy Tales』로 2011년 스캇 단편소설상(Scott Prize for Short Stories)을 수상했다.



제목 : THE UNREMEMBERED GIRL
가제 : 잊혀진 소녀
저자 : Eliza Maxwell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11월 1일
분량 : 332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2017년 10월 '아마존 퍼스트 리드 셀렉션'으로 공개 후 현재까지 전자책, 종이책 합산 35만 부 이상 판매**

*** 아마존 차트 베스트셀러, 별점 만점을 준 독자 서평 900건 이상**

텍사스 동부의 작은 마을, 울창한 숲이 바로 곁에 있는 집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족에게 낯선 존재가 나타난다. 언젠가부터 숲 어딘가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여인, 이브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 그들 중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 조금씩,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선다. 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 비뚤어진 종교관에 갇혀 있는 계부 대신 밀주를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헨리는 어느 날 갑자기 숲에서 나타난 이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위험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가족들의 운명은 휘청대기 시작한다. 야생동물처럼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여인을 도와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을까? 이브의 정체는 무엇일까? 깊은 상처를 받아 구원받고 싶은 사람과 버거운 책임감에도 누군가의 삶을 고쳐보려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또 다시 생겨나는 상처와 아픔을 그린 독특한 소설이다.

이브가 나타나기 전에도 헨리의 가족은 입에 올리지 못할 상처를 애써 누르며 살아왔다. 쌍둥이 남매를 키우던 홀아비와 재혼한 헨리의 어머니는 새로 자식이 된 마리와 델을 직접 낳은 것처럼 아꼈고 헨리가 어릴 때는 다섯 식구가 도란도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헨리가 여섯 살일 때 마리는 열두 살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헨리에게는 마리가 이복 누나 이상의 존재였다. 처음 두 쌍둥이가 새로운 식구가 되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델과 헨리는 쉽게 가까워지지 못했고 서로 말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마리는 여섯 살 어린 막내를 짓궂게 놀리기도 하고, 늘 데리고 다니면서 델과 헨리가 친해질 수 있도록 애썼다. 셋은 부모님 몰래 숲 속을 몇 시간이나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으스스하다며 무서워하는 숲 속의 작은 판자집에 헨리가 처음 용감하게 발을 들여놓은 것도 마리가 자꾸 부추긴 덕분이었다. 아주 오래 전, 사냥꾼과 아들 두 사람이 살았다는 그 집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아버지 머리에 권총을 쏘고 곧바로 자신도 목을 매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후부터 그 집은 내내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외딴 공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헨리는 더 긴 시간이 흘러 이브가 나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엄마는 허약한 몸에도 늘 목소리만은 쩌렁쩌렁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집 주변 멀리까지 아침 이슬을 맞으며 숲을 산책하는 것도 변함없는 엄마의 일상이었다. 언제 갑자기 기운이 쭉 빠져 쓰러질지도 모르는 엄마가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영 못마땅해서 헨리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하곤 했다. 이브가 나타난 건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산책을 떠난 엄마를 헨리가 허둥지둥 데리러 간 날이었다. 헨리의 걱정대로 엄마가 뭔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던 찰나,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난 사람이 엄마를 붙잡아주었다. 그런데 몸을 바로 세운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쏜살같이 숲으로 들어가버렸다. 대체 누구였을까? 헨리 역시 아주 젊은 여자라는 것 외에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왠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그 여자의 존재는 며칠 뒤, 제 발로 헨리의 집 앞에 그녀가 나타나면서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다. 배가 고픈지 주방으로 들어선 그 여자에게 엄마는 아무 말없이 방금 요리한 음식이 담긴 접시를 내밀었고, 잠깐 주저하던 여자는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손으로,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다. 분명 사람이었지만 몰골은 한 마리 야생동물에 가까웠다. 지저분하고, 옷차림도 엉망인데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기계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아버지의 거듭된 물음에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이브라고 더듬더듬 말했다. 헨리는 엄마의 눈빛에서 이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을 수 있었다. 오래 전 잃어버린 딸, 헨리의 누나 마리를 보던 그 눈빛이었다. 미처 지켜내지 못해 먼저 보낸 딸 대신 갑자기 나타난 이 외로운 짐승 같은 존재를 돌봐줘야겠다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며 길거리에 나가 설교를 하고 다니는 아버지는 이브에게 '사악한 마귀'가 씌었다며 난리를 치더니, 엄마와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브는 내내 텅 비어 있던 마리의 방에 머물며, 고스란히 남아 있던 마리의 옷들을 입고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 생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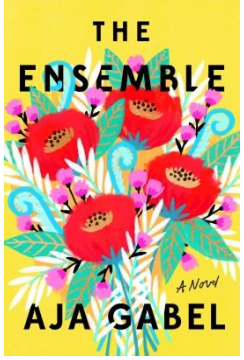
이브는 누가 봐도 마음에 큰 상처가 많은 것 같았다. 친절한 손길에도 화들짝 놀라고,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고 짓밟힌 것 같은 흔적도 많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조금씩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헨리였다. 그리고 헨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브에게 점점 빠져든다. 이브를 향한 헨리의 사랑이 감당 못할 정도로 깊어질수록 헨리의 가족들은 위태로워진다.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목숨을 잃고, 총격으로 델까지 목숨을 잃고 만다. 그리고 이브의 뱃속에 잉태된 새 생명은, 마지막 남은 헨리까지 최악의 불행으로 내몬다. 아이를 괴물로, 자신의 행복을 집어삼킬 존재로 여기는 이브에게서 갓 태어난 아기를 떼어놓아야만 하는 헨리는 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그녀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뒤늦게야 깨닫는다.

<저자 소개>

엘리자 맥스웰(Eliza Maxwell)은 텍사스에서 글을 쓰고 있다. 소설 『The Grave Tender』, 『The Kinfolk』를 발표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ENSEMBLE
가제 : 앙상블
저자 : Aja Gabel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



*** 경쟁이 치열한 클래식 음악을 그만 두고 작가가 된 저자의 NPR 인터뷰 - 링크**

***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하모니를 이루지만 늘 함께 공유한 과거로 연결되어 있는 네 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강력한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셀레스테 응**

좋아하는 일,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정을 다하는 이야기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감동과 신선한 자극을 준다. 현악 4중주단으로 한 팀이 된 네 명의 젊은이들의 사랑과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생생하게 그린 이 소설 역시 순수한 야망이 주는 감동과 함께 음악이라는 소재가 선사하는 예술적 아름다움, 팀 플레이의 가치를 전한다.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작가가 쓴 이야기답게 음악에 대한 묘사와 연주자들 간의 관계, 음악계의 현실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특별한 소설이다.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반 네스 현악 4중주단은 마침 다른 행사로 학교를 찾아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포도리오에게 몇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솔리스트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회를 열고 있는 잘 나가는 음악가답게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네 사람의 연주를 지켜봤다. 졸업 연주회는 그저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엄격히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시간이자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에이전트나 음악계 관계자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반 네스 4중주단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뒤 캐나다에서 열리는 '에스터하지 경연'이 이들의 주된 목표였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힘겹게, 가까스로 이어온 음악 활동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팀의 리더인 자나도, 제2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브릿도, 가장 어리지만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난 비올리스트 헨리도, 그리고 최연장자인 첼리스트 대니엘도 오랫동안 우승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러나 포도리오와의 짧은 만남은 이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다.

사실 포도리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 건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자나는 그가 올해 에스터하지 경연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연주회나 대회가

임박하면 다른 사람의 공연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철칙을 깨고 자나가 졸업 연주회 이틀 전에 열린 포도리오의 협연을 보러 간 것도 같은 목적 때문이었다. 졸업 연주회를 무사히 마치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자신의 호텔로 가는 길을 굳이 직접 안내해달라는 포도리오의 노골적인 요구도 자나는 역시나 그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연 우승, 오직 그것만이 어릴 때부터 가난한 형편에 꾸역꾸역 음악을 해온 지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실한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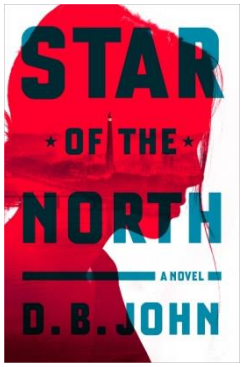
얼마 전까지 연인 관계였던 브릿과 대니엘은 갑작스러운 대니엘의 이별 통보로 짧게 끝이 나고 브릿은 쉽게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지 못한다. 나이도 어리고 별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지도 않은 헨리가 누가 봐도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대니엘이 브릿과의 관계는 물론 숱한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한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철저히 노력파인 자신이 나머지 팀원들, 특히 헨리의 기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십 배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일이었다. 헨리 역시 첫 과외가 끝난 뒤 포도리오가 팀원들 몰래 내민 명함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4중주단으로 활동하는 대신 솔로로 나서보라고, 뉴욕으로 오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주겠다는 포도리오의 적극적인 섭외에 헨리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 쥐기만 했지만 그 날 이후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느꼈던 처음의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명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기계적인 조화가 아닌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생겨나는 진한 감동의 가치를 아는 네 사람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결정지을 중대한 경연과 기회를 앞두고 각자 갈등의 기로에 선다. 소설은 이들이 풋풋한 젊은이들이던 시절부터 중년이 되기까지 음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가슴 아픈 이별과 결혼, 큰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밀쳐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과 비밀, 기억이 밑거름이 된 협주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음악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소설이라는 매체로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만한 이야기다.

<저자 소개>

아자 가벨(Aja Gabel)은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작가로 전향했다. 웨슬리언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휴스턴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enyon Review」에 실린 에세이 "The Sparrows in France"로 동 잡지로부터 '2015 미국 최고의 에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Atlantic Monthly」, 「Inprint」, Sewanee Writers' Conference, Literary Arts Oregon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STAR OF THE NORTH
가제 : 북쪽의 별
저자 : David John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8년 5월 22일
분량 : 416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북한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소설
* 영국, 독일 pre-empt 계약 체결
* 뉴욕타임스 전자책 베스트셀러에 오른 탈북 여성의 이야기 『THE GIRL WITH SEVEN NAMES』 작가가 북한을 배경으로 쓴 두 번째 스릴러

1998년 여름, 동글동글 작은 색색의 돌들이 가득한 백령도 콩돌 해변에서 두 남녀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대학교 1학년생인 진화,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에 유학 온 수민은 인적 없는 해변에서 사진도 찍고 바다를 바라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진화가 나무 장작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는 사이, 수민은 가무잡잡한 진화의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오징어를 구워 먹고 진화가 가져온 기타로 파도소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르던 그때, 바다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진화가 기타를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수민은 의아해하며 그의 시선이 꽂힌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잔잔한 파도와 맞닿은 해변과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바다에 새하얀 거품이 일고 물살이 솟구치고 있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달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두 눈을 멀게 만드는 강렬한 주황색 조명이 두 사람에게 떨어졌다. 수민과 진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며칠 간 백령도 일대를 수색한 인천 경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민과 진화가 백령도로 들어간 후 백령도에서 외부로 나온 여객선 중 어느 곳에도 두 사람이 탑승한 기록이 없다는 점, 북한과 가까운 지역 특성상 지정된 여객선과 선박 외에는 배가 운항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그리고 동네 주민이 콩돌 해변에 고스란히 남아 있던 두 사람의 소지품을 발견한 점으로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된 점, 그리고 며칠간 이어진 수색에서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익사로 결론 지은 이유였다. 결국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수색은 종료되고, 두 젊은 청춘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2010년, 수민의 쌍둥이 언니인 제나는 여전히 수민을 잊지 못한 채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살았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능한 학자로 살아가는 그녀는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한국 경찰의 결론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

고 이상한 것 한 가지, CIA가 제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일상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제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학자인 여성에게 왜 중앙정보부가 관심을 보일까?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한편, 북한에서는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중국과 접한 양강도에서 한 60대 여성이 특별한 장사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다. 해외 원조단체가 날려보낸 거대한 풍선이 밭에 떨어지면 그 속에 담긴 온갖 물품을 모두 주워다가 근처 마을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음식과 신기한 물건들은 인기 만점이었고 곧 장사는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 가난과 먹을 것이 부족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하나 둘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저 물건 파는 장사꾼이던 여성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

같은 시기, 북한 고위급 외교관인 조상호에게도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다. 형이 내각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로 승진할 기회를 얻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자리를 내어줄 리는 없었다. 예상대로 최고지도자 직속 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두 형제의 집안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라도 흠이 발견될 경우 형이 꿈꾸던 그 자리는 그대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한 두 사람이 힘겹게 쌓아온 경력이 어떤 위기에 처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부모였다. 아기일 때 버려진 두 형제를 키워준 북한의 유력한 명문집안 양부모가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부모. 그들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여지없이 사실로 드러나고, 조상호와 아내, 아들까지 거대한 위협에 휩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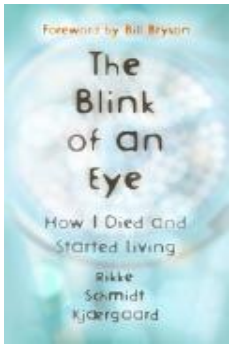
10여 년 전 사라진 두 남녀, 고통 받는 인민의 대변인이 된 60대 여성,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가족의 과거사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고위급 외교관, 이들의 운명은 한 점에서 만나고,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절정으로 치닫는다. 북한을 다녀온 서구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의 풍경,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절망적인 실상,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들이 엉키며 흡입력을 발휘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존(David John)은 북한을 여행해본 몇 안 되는 서구인 중 한 명이다.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전작 『THE GIRL WITH SEVEN NAMES』(HarperCollins, 2015)는 뉴욕타임스 전자책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 밖에도 역사 스릴러 『FLIGHT FROM BERLIN』(HarperCollins US, 2012) 등을 발표했다.

NON-FICTION

제목 : THE BLINK OF AN EYE
가제 : 눈꺼풀 대화
저자 : Rikke Schmidt Kjærgaard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매혹적인 동시에 가장 끔찍한 이야기" - 베스트셀러 저술가, 빌 브라이슨(Bill Bryson)
* "스릴러 소설처럼 몰입하게 되는 이야기" - 「SUNDAY EXPRESS」

2013년 새해 첫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서른여덟 살 여성이 세균성 뇌막염으로 갑자기 쓰러진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여덟 살, 열네 살, 열여덟 살 세 아이들의 엄마이자 듬직한 남편의 곁을 지키는 아내로, 과학자로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하고, 걷고, 웃었던 사람이 열이 펄펄 끓고 구토와 설사를 쏟아내더니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의식이 깨어났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눈꺼풀을 깜박이는 것이 전부였다. 프랑스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에세이 『잠수복과 나비』로 전 세계에 알려진 희귀한 병 '감금 증후군'에 걸려 몸은 옴짝달싹 못하지만 의식과 정신은 오롯이 깨어 있는 상태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저자의 이야기는 극히 희박한 생존 확률을 뚫고 건강하게 살아 남았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준다.

역사학 교수인 남편이 그녀가 쓰러진 다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 놓은 투병 과정과 누구도,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희망을 붙들기 위해 열심히 싸운 가족들, 친지들의 이야기 덕분에, 저자는 그 고통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과학자로서 자신의 몸에서 벌어진 변화를 세포 단위까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특별함이 더해져, 내내 저자를 지켜본 의료진이나 가족들이 결코 속속들이 알 수 없었던 '환자 관점에서 경험한 변화'가 더없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의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상황을 정반대로 이겨내기까지 저자와 주변 사람들이 겪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불안, 공포, 그리고 절대 놓지 않으려 했던 작은 희망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스무 살 때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았다. 면역계가 몸 곳곳의 세포를 공격하는 이 병은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 외에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결혼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2013년 새해 첫 날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상 증상을 그저 컨디션 난조로 여긴 것이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느닷없이 열이 펄펄 끓어 한밤 중에 연락을 받고 주치의는 '독감'이라고 진단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박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저자는 눈꺼풀 움직임 하나로 남편과 소통하려 애썼던 일들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능들, 숨쉬고 음식물을 넘기고 다시 입을 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겪은 시간들, 피땀 어린 노력들, 아이들에게서 얻은 형용할 수 없는 위로의 순간을 우리에게 전한다.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일깨우는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한 인간의 이례적인 도전과 경험을 선명하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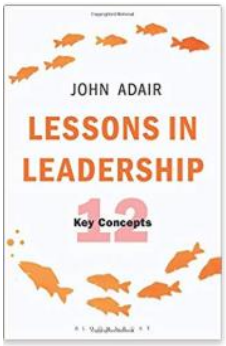
<목차>

서문
1. 죽다
2. 살아나다
3. 존재하다
4. 눈을 깜박이다
5. 숨 쉬다
6. 치유
7. 기울다
8. 걷다
9. 자르다
10. 떠나다
11. 살다
맺음말

<저자 소개>

리케 슈미트 키에르가드(Rikke Schmidt Kjærgaard)는 코펜하겐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체 'Graphicure'의 공동 설립자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Danish Science Club'도 운영하고 있다.

제목 : LESSONS IN LEADERSHIP
가제 : 리더십 레슨
저자 : John Adair
출판사: Bloomsbury Business
발행일: 2018년 9월 4일
분량 : 184 페이지
장르 : 경영/리더십



*** 영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이론가가 제안하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20가지 요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쉬운 세상이 될수록 리더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리더가 절실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리더십에 관한 책이나 기사, 자료들만 보아도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979년에 세계 최초로 대학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되고 유엔 산하기구인 참모양성학교에서 리더십 교육을 이끈 저명한 학자는 그간 세계 곳곳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대다수의 리더십 관련 서적들이 다양한 경영진이 털어놓은 고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한다면, 이 책은 역사와 문학 속에서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확립되고 장려되었는지 폭넓은 자료를 토대로 탐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군대, 시민통합,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리더들이 어떤 점에서 각광을 받았는지 분석하여 저자가 나름의 리더십 모형을 구축한 과정이 차례대로 소개된다.

카이사르, 크세노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로스 2세, 스파르타의 장군 클레아르코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시, 맥베스를 비롯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C. S. 루이스가 남긴 글에 기록되고 묘사된 리더를 상세히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인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1968년에 '삼원 모형'을 처음 확립했다. 과제, 팀,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된 세 개의 원이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일부가 겹쳐진 고리 모양을 이룬 이 모형은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무너지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고찰에서 나왔다.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경우 팀 전체의 결집력이 흔들리고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 역시 떨어진다는 점, 마찬가지로 팀이 단단히 뭉치지 못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과제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역시나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조직에 속한 개개인이 좌절하거나 일에 즐겁게 임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과제 수행과 팀의 업무 효율성에 모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반영된 모형이다. 저자는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원칙을 토대로, 리더는 과제를 수행하고, 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건강하게 유지하고, 개개인의 발전과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 기본적인 원칙에 양적인 성과만큼 중요한 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한 끝에, 일에 열의를 갖도록 하는 것, 완전

성을 유지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냉철하게 요구하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따뜻한 태도와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자가 도출한 리더의 스무 가지 핵심 자질이 제시된다.

무엇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가를 두고 혼란스러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대부터 현재까지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 변치 않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주고 현재와 같이 극심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팽배한 세상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밝힌 책이다. 소규모 팀부터 수천 명에 이르는 조직까지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의 기능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처음 든 생각들
2. 앞에서 이끄는 일
3. 위험과 고생을 나누는 일
4. 삼원 모형의 발견
5. 리더의 역할
6. 전체적인 틀
7. 열의
8. 완전성
9. 냉정하게 요구하되 공정하게
10. 따듯함과 인간성
11. 겸손함
(이하 생략, 총 14장과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어데어(John Adair)는 리더십 이론가이자 40권 이상의 책을 낸 저술가다. 2006년부터 상하이 '중국 경영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명예 교수를 맡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엔 참모양성학교(UNSSC) 리더십 연구 대표로 지명됐다.

제목: I USED TO BE A MISERABLE F*CK

가제: 나는 꼴사나운 어린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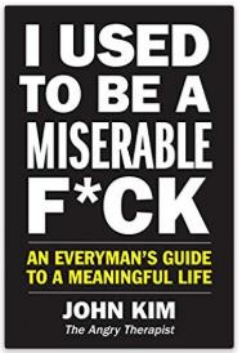
저자: John Kim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9년 1월 29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폴란드,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자기계발 코치, 치료사이면서 자신의 인생도 엉망이 되어버린 '성난 치료사'가 거침없이 전하는 충고, 겉모습만 어른이 아닌 속까지 성숙한 어른이 되는 법**

"제발 철 좀 들어라!"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아직 철들지 못한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마땅히 철이 들어야 할 나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 다 큰 성인인데 어린애처럼 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잔소리를 듣곤 한다. 그렇다면 성별은 어떨까? 엄마가, 아내가, 여자친구가, 심지어 직장 상사가 철 좀 들라고 호소하는 대상은 여자보다는 남자인 경우가 더 많다.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만 자랐지 속은 자라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남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직업이 공인 치료사이고 자기계발 코치인데 정작 자신의 삶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던 저자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남성들이 소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대인관계를 미성숙한 태도로 이어가는 것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저자 자신도 그랬고, 수많은 남성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문제,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성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남성 개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 꽁꽁 갇힌 어린애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거리낌없이 툭 터놓고 알려준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고,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 친구들이 또 다른 롤 모델이 된다. 같은 원리로 남자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남성상'이 구축되는 기본 토대가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없이 엄마 손에만 자라는 한부모 가정도 많고 아버지가 있어도 가족들, 특히 어린 자식들과의 교류가 부족하거나, 원만하지 않아 없는 존재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저자는 치료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십대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상담해본 결과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한다. 여학생들은 똑같이 적당한 롤 모델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대안을 찾지만 남학생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길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길을 잃은 남학생들은 그 불안정한 상태 그대로 나이와 몸만 어른이 된다. 여기에 왜곡된 남성상을 보여주는 광고와 방송, 포르노의 영향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법 자체를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한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꺼려하는 남성 특유의 성향이 더해져 미국에서만 매년 3만 명에 달하는 자살자의 79 퍼센트가 남성이고 600만 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총기로 무차별 살상을 저지르는 사람도 99 퍼센트가 남성이다.

저자는 내면이 성숙해지려면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하며, 반복적인 자기 반성과 고통을 딛고 용기를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 아예 다시 태어난 것처럼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 이토록 험난할지언정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가장 절망적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꼭 필요한 길이라는 사실이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징징대고 투정만 부리는 덩치 큰 어린아이에서 의젓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상세히 소개한다. 쓸데없이 힘 자랑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불행하게 살기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어울려 사는 법을 웃음 터지게 만드는 이야기와 함께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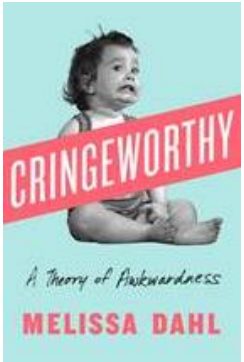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부. 자아
2부. 건강
3부. 사랑과 대인관계
4부. 직업과 성공
5부. 소통
6부. 그 외 모든 것
결론

<저자 소개>

존 킴(John Kim)은 공인 치료사이자 자기계발 코치로 'The Angry Therapist'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계발 코치 자격을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atalyst Life Coaching Course를 개발했다. 저서로는 『The Angry Therapist』가 있다.

제목 : CRINGEWORTHY
가제 : 이불킥의 과학
저자 : Melissa Dahl
출판사: Portfolio
발행일: 2018년 2월 1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움찔 놀라고, 주춤하고 움츠러드는 반응의 이유를 모두 알려주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과감한 대책을 제시한 책" - 베스트셀러 『Cork Dork』의 저자 비안카 셰릴**
* **"저자는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가 민망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우리 스스로를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베스트셀러 『Happiness Project』의 저자 그레첸 루빈**

일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해야 할 이야기를 끝내고 일어서서, 아주 깍듯하게 악수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까지 마쳤는데 알고 보니 가는 방향이 같아서 꽤 긴 거리를 함께 걷게 되었다면? 심지어 같은 전철이나 버스에 오른다면? 청중 앞에 서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남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열심히 넘겨보다가 모르고 '좋아요'를 누르는 바람에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면? 살면서 우리는 이런 민망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는다.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불 킥 할 만한 사건'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 난감하고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건 자체는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쉽사리 털어지지 않는다는 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혼자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이며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평소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혹은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세상이 실제로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격차가 한층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심리학과 건강에 관한 기사를 주로 써온 저자는 이 강력하고 머릿속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울고 싶게 만드는 이 민망한 감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책에서 파헤쳐본다. 그저 피하고만 싶을 뿐 제대로 탐구된 적이 별로 없는 민망함이라는 감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더 이상 민망할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보려고 북적대는 뉴욕 전철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새 친구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과 처음 대면하기도 하고 즉흥코미디 수업,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중학교 때 쓴 일기 큰 소리로 읽기 같은 듣기만 해도 민망한 일들을 몸소 실천해본 저자는 이 당혹스러운 감정만큼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쪽 팔리는' 감정이 어떻게 저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감을 끌어 올리고 타인과의 교감을 더 늘리는 효과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저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시대에 밝혀진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위트와 흥미로운 사례

를 담아 재미 있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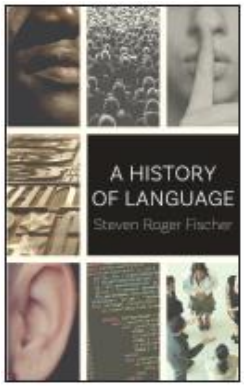
민망하고 어색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상대방과의 사이에 놓여 있던 보이지 않는 막을 싹 거둬낸 뒤 한 단계 더 친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어떤 감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민망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대다수의 생각처럼 그런 사건이 '이상한 사람' 혹은 '덜 떨어진 사람' 취급 받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깨닫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뜻밖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목차>

1장. 민망한 시대, 1부.
1장. 그게 내 모습인가요?
2장. 자기 인식을 향한 집단적 공포
3장. 감정적으로 영리한 기계를 보며 인상 찌푸리기
4장. 점점 날이 설 때
2장.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나요?
5장. 소용돌이치는 민망함
6장.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춤추기 -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예외도 있지만
7장. 당신의 결점은 곧 나의 고통
8장. 발작적인 민망함
(이하 생략, 총 3장, 11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멜리사 달(Melissa Dahl)은 「The Cut」에서 심리학과 건강 기사를 담당하고 있다. 뉴욕매거진의 사회과학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Science of Us'를 함께 만들고 현재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제목 : A HISTORY OF LANGUAGE
가제 : 언어의 역사: 말하는 유인원
저자 : Steven Roger Fischer
출판사: Reaktion Books (개정판, 초판 1999년)
발행일: 2018년 7월 1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인문/역사

*** 터키, 일본, 중국 판권 계약 체결**

*** "일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오랫동안 어느 정도 알려진 광활한 영역을 탐구한 흥미롭고 야심 찬 여정. 저자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성취의 기반이 된 요소와 독특한 측면에 곧장 다가가 어려운 질문들의 답을 찾고자 한다." - 노암 촘스키**

*** "재미 있고 의외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거장이 인도하는 언어 세상의 투어" - 「이코노미스트」**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단시간에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수록 언어도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형된다. 1999년에 초판이 발행된 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여러 차례 재출간된 이 책에서 저자는 과연 언어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적한다. 대다수의 생각과 달리 '언어'의 개념이 인간의 소통 방식에 최초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돌고래와 조류, 영장류의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더불어 인간이 사족 보행에서 벗어나 직립 보행을 시작하던 시절과 네안데르탈인들이 사용하던 언어, 이후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사용된 언어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언어학'이 어떤 필요에 의해 처음 등장했는지 분석한다. 소통 수단이던 언어가 '과학'의 하나로 분류되고, 문자 언어가 발달하게 된 과정과 함께 '피진어'로도 불리는 혼성어, 크리올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속어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며, 나아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선전 활동, 광고, 기타 언론 매체가 오늘날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전자 매체가 앞으로 인류의 소통 방식을 새롭게 바꿈에 따라 미래의 언어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될 것인지도 전망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학의 역사에서는 잘 알려진 언어학적인 변화나 인류 언어가 재구성된 과정에 주목하는 반면, 이 책은 인간이 아직 동물의 언어밖에 사용할 줄 몰랐던 더 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차이가 있다. 즉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핵심 수단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언어의 역사를 다룬다. 실제로 '언어'의 공식적인 정의도 기존과는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언어를 호모 사피엔스만의 독점적인 특권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생명체든 다른 생명체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수단을 일종의 '언어'로 보는 견해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 언어를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경우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사실들이 눈이 들어온다. 언어는 특정 시점, 혹은 변화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며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수억 년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진화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저자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언어학적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언어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다.

대중 매체의 발달로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언어가 현재와 같이 확립되기 전, 의사소통 자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흥미로운 역사서다.

<목차>

개정판 서문 / 머리말
1. 동물의 소통 방법과 '언어'
2. 말하는 유인원
3. 최초의 가족
4. 문자 언어
5. 혈통
6. 언어학을 향하여
7. 사회와 언어
8. 미래 지표

<저자 소개>

스티븐 로저 피셔(Stephen Roger Fischer)는 뉴질랜드 '폴리네시아 언어문학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Glyph-breaker』, 『A History of Writing』, 『A History of Reading』, 『Island at the End of the World』 등이 있다.

제목 : HOW TO MOVE
가제 :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저자 : Richard Brennan
출판사: Eddison Books Limited
발행일: 2019년 8월
분량 : 약 30,000 words
장르 : 건강

*** 올바른 자세와 호흡 전문가, 25년 경력의 알렉산더 테크닉 지도자가 소개하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법, 건강에 해로운 자세 습관 바로 잡는 법**

인체는 206개의 뼈와 900개가 넘는 인대, 650개 이상의 근육과 움직일 수 있는 150개 이상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의 신비로움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모든 구성요소가 제각기 세밀하게 정해진 기능과 작동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관절은 대부분 둥그스름한 표면이 또 다른 둥그스름한 표면과 맞닿아 있고, 따라서 꽉 맞물리는 형태가 아니므로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지만 바로 이 불안정성 덕분에 우리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억지로 큰 힘을 들이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인체를 원래 정해진 기능과 방식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혹은 그저 팔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움직임에도 불필요하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식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지속되면 과도하게 긴장한 부분이 너무 일찍 닳고 만다. 그 결과 오늘날 곳곳에 즐비한 정형외과 간판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근육이나 골격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움직여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지금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그저 몸에 익었을 뿐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자세였다면? 저자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운동법으로 잘 알려진 알렉산더 테크닉 전문가로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현대인 대다수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의 원리,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평소에 몸을 움직이면서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편하다고 느껴지는 방식대로 움직일 뿐이지만, 그렇게 축적된 잘못된 습관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로막고 몸에 해를 끼친다. 저자는 현재 몸에 익은 자세와 몸 움직이는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고, 나쁜 습관은 고쳐서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혹은 걷거나 뛰는 등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 딱 한 가지 '옳은 방법' 같은 건 없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신체 구조의 형태와 정해진 기능을 바탕으로 움직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원래 주어진 역할에 맞게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부적절한 움직임이 바로

잡히면 자연스레 노화 과정을 늦추고 좀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또한 수많은 건강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세와 움직임이 바르면 정신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몸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편해지는 놀라운 결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몸이 통증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병을 키우는 현대인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을 짚어주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통해 차근차근 올바른 자세, 동작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유익한 건강서다. 특별한 운동법을 소개하기보다는 걷기, 앉기, 달리기, 몸 구부리기 등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대다수가 겪고 있는 목과 등의 통증을 가라앉히고 더 가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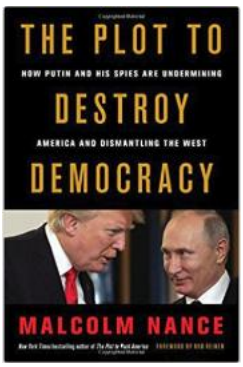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삶은 움직임이다
2. 움직임의 해부학적 분석
3. 똑바로 서기
4. 내면
5. 일차적인 제어
6. 손을 들고!
7. 힘들이지 않고 일어나고 굽히기
8. 다음 걸음 내딛기
9. 편안한 달리기
10. 움직임과 감정

<저자 소개>

리처드 브레넌(Richard Brennan)은 아일랜드 '알렉산더 테크닉 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알렉산더 테크닉을 지도해 왔다. 저서로는 『The Alexander Technique Manual』, 『Change Your Posture - Change Your Life, and Stress』 등이 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PLOT TO DESTROY DEMOCRACY
가제 : 총알, 거짓말, 노트북, 스파이: 러시아의 민주주의 붕괴 플랜
저자 : Malcolm Nance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8년 6월 2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정치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 #9**

*** 초판 10만 부 인쇄 / 미 상·하원 정보위원회의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 고문, 의회 청문회에서도 진술한 35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가 폭로하는 러시아의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대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겨냥한 러시아의 해킹과 푸틴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개입을 폭로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The Plot to Hack America』를 쓴 작가는 대선 조작을 넘어 미국, 더 나아가 서방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러시아의 방대한 계획을 이번 신작을 통해 밝힌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의혹이 아닌, 진실이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참모진 모두 러시아와 무수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저자의 주장은 간첩 활동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35년간 미 정부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한 독창적인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푸틴 대통령은 왜,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손을 뻗쳤을까?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가 중심인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전체 그림과 그 중요한 첫 단추가 된 선거 개입 과정을 샅샅이 분석한 책이다.

우익 편향이 강한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오랜 적이라 손가락질하던 러시아를 갑자기 '친구'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변화다. 반테러 전략 전문가인 저자는 이것이 미국을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거둔 승리라고 이야기한다. 2016년 대선 당시 자칭 자유주의 언론들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에 과도하게 집착한 것,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가 푸틴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변함없이 지지 의사를 굳힌 것, 이 모든 흐름이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러시아에서 작성된 기밀 정보와 정보전, 사이버전, 전통적인 전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투 전략이 담긴 문건을 토대로 냉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세를 뒤집으려는 러시아의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저자는 트럼프의 승리를 위한 사이버전,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기가 되도록 교묘하게 조작한 전략,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뿌리부터 흔들리도록 내부에서 공격한 작전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들

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러시아의 민주주의 붕괴 계획을 저지하려면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한지도 제안한다.

푸틴의 재집권 이후 미국을 향한 러시아의 적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향과 KGB 요원으로 활약했던 푸틴 대통령이 준비한 '적극적인 조치'에 담긴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푸틴의 노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통찰력 있게 분석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사이버 베어'
1장. 발사된 총알
2장. 모스크바에 보고된 것
3장. 다시 위대한 러시아로
4장. 푸틴의 철학
5장. 떠오르는 러시아, 추락하는 미국
2부. 총알, 거짓말, 노트북, 그리고 스파이
6장. 적극적인 조치
7장. 가짜 뉴스
8장. 인터넷 검색기관 & 러시아 사이버 무기
9장. "헤일 하이드라!"
10장. 독재의 축
(이하 생략, 총 14장,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말콤 낸스(Malcolm Nance)는 35년간 미국 정보부에서 근무했다. 암호학을 전공한 국가안보정책 전문가로 반테러 정보정책, 테러리스트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Plot to Hack America』를 썼다.